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Dear Mr. Jean-Paul REAU, Ambassador

안상범 / 건축사사무소 마당
by Ahn Sahng-Beom

This letter is concerning the recent event,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The French Touch". Which took place last 25 november at shilla hotel dynasty Hall. This is only to express my thoughts and views concerning the event. (이 편지는 지난 1997년 11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The French Touch" 를 참여하고 느꼈던 평가이자 개인소신입니다.)

예전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 문화(역사)조사단이 우리 천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연구하러 온다하여, 우리 문화부가 갑자기 청소하고 묵은 때를 빼고 손님맞을 준비로 법석을 떤 후, 수일 뒤 프랑스 조사단이 와서 말끔해진 석굴암을 보았다 합니다.

대사님께서도 우리의 석굴암이나 다른나라 고적들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들 조사단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천년의 숨결이 깃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것을 지킬줄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우리 것에 대한 문화인식도 였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프랑스 건축가들이 이곳에서 건축활동 하는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년전 일본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이란 것이 조선총독부였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데는 50년이나 걸렸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전철이라는 과제를 놓고 경제적 · 문화적 지배가 되지 않을까 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에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EURO STAR도 타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했던

저를 편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기껏해야 400km정도인 우리나라 남한땅 위아래를, 뽀뽀뽀뽀 중소도시를 다거쳐서 440km노선을 TGV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전차의 시속이 200km이상이면 될합니까? 역 시간 평균거리라야 50km정도 밖에는 되질 않을텐데 말입니다.

만일 당신네 건축가들이 문화의 사절로 와서 우리네 도시와 농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축활동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신네(한국) 나라는 이런 고속전철 따위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가는 기차(전차든 아니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전차는 바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작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고하십시오."라고 권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Jean Nouvel, Portzamparc등의 많은 건축가들이 국내에 들어와 많은 빌딩을 설계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정자들이 서민들에게 "고속전철은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며 당신네 정권과 짜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정부나 당신네 정부나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강력히 부각시키고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네 건축가들은 "전철지나가는 곳을 이렇게 판자로 막고 물감을 칠하면 빠른 것 때문에 어지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주위 자연과도 조화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당신네 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프랑스)도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200년입니다. 역사가 깊은 나라는 역사가 깊은 나라끼리만이 문화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업지른 물을 댕기에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Jean Paul, REAU 대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역사의 문화, 우리만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건축문화가 어떤건지 아십니까?

우리 건축은 석굴암에 끼어 있던 때, 쌓인 먼지와도 같은 어머님의 껍죄죄한 때물은 저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감히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한다거나 고속전철역사와 선로변 차음벽을 디자인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하십시오.

Jean Nouvel의 전위적인 유리벽도 좋고 Portzamparc의 진하게 확장한 신부얼굴도 좋습니다만, 먼훗날 그 건물들이 쓸모(유행)를 다하고 Jean Nouvel이나 Portzamparc이 설계한 건물에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변경될까 하여 걱정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건물 양식이 무작위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식의 Jean Nouvel나 Portzamparc의 유품은 프랑스에나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유리벽에는 때가 낄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속에 있는 자연조화의 역사물을 유리벽을 통해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막히는 유리문과 퀘퀘한 된장냄새마저 통하게 하는 창호지는 다릅니다.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의 직지심체요절도 창호지에 싸여 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사이엔 Jean Nouvel의 유리벽이 있습니다. 서로 볼 수는 있으나 만지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숨결이 통하려면 유리벽을 허물고 오십시오.

우리엔 창호지로 만든, 병풍이 있습니다. 병풍은 오래 묵으면 때가 끼는 것이며 필요할 땐 막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병풍은 L' Arche de la De' fense에 바람을 막아 놓은 유리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히 청컨데 바람이 통하지 않는 유리벽으로 더 이상 우리문화를 가두려 하거나 고속전철의 빠른 바람으로 쌓인 먼지를 날려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우리 때(먼지)를 보여 주지 못한 것(석굴암 등)이 원인이지요.

때는 감추고 싶은 것이니까요.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썩어진 유리벽을 깨고 우리의 때를 과감히 보여줄 때가 말입니다. 금은 흙속에 있어도 금이고, 진주는 조개안에 있을 때도 진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특히 캐나다의 퀘벡에서 프랑스 후예들이 그들 문화를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땅에서 우리문화유산을 누리고 성장시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우리 문화를 보존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정 당신네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문화에 대하여 갖고있던 느낌이며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못다한 말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